



나누는 공동체, 떠불어 사는 공동체

#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톨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 **제1독서** | 이사 58,7-10

화당송 시편 112(111) 4-5.6-7.8 그과 9(◎ 4 기)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 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제2독서** | 1코린 2,1-5

복음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5.13-16

#### 성가

입당성가 421 나는 세상의 빛 예물준비 340 주우리 구하고자 성체성가 156 한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437 찬양하라 주님의이름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본당에서 믿음속에 살다가 선종하신 조화 장안나	요셉회
" 강주옥 소피아	요셉회
" 원용한 요아킴	요셉회
" 김 <del>종목</del> 리차드	요셉회
" 강세랑 엘리사벳	요셉회
" 강견대 마리아	요셉회
"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요셉회
* 화자 소화데레사	요셉회
김철영 미카엘	노사비나
이정진 안토니오	한동훈
이정진 안토니오	이영애 레지나
김창수 김금옥	경희자 리드뷔나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생미사	봉헌

#### 생미사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박크리샤, 노희정, 여선구 생일축하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녜스 이경자율리안나, 성미나아가다, 진문자스콜라스티카 축일 김동권사무엘신부, 가롤로신부, 효주수녀 김동권사무엘신부, 가톨로신부, 효주수녀 석귀순 마리아 김이엘리사벳 건강 양미숙 마리아, 김효진 율리안나 이로진 요한, 이로잔 캐더린

정다경 마리아 하늘처럼 성가대 가족 : 성모회 안선정 마리안나 박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미숙 안나

주일	해설	1 <del>독</del> 서	2 <del>독</del> 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2월 05일	이아녜스	민필립보	이율리안나	이율리안나	민안젤라	없음	2
2월 12알	김데레사	정프란치스코	김이레나	김이레나	김비비안나	없음	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 ▶2월 영명축일

2.2 모든 수도자 2.3 블라시오 2.5 아가타 2.10 스콜라스 티카 2.14 치릴로 2.23 폴리카르토

####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대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보13,2

#### ▶손님 신부님 미사집전

김 가톨로 신부님께서 한국에 비자갱신 위해 다녀오시기에 손님 신부님께서 미사집전 하십니다.

2/5(일): 김동권 사무엘 신부(뉴튼 수도원)

2/12(일): Fr.Thomas M. Gallagher, ofm (맨티탄성당 주임신부)

## ▶성지(聖枝)가지 회수



2022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가져가 각 가정의 벽면 십자고상 뒤에 1년 동안 두셨던 성지 가지 회수합니다. 2월 15일(수)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주세요. 이 가지는 2/22(재의수요일)에 간격은 격을 갖추는 것 일정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

나도 있듯이 너도 있으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애로운 평화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



#### ▶제 13차 성령안에 성장세미나

일 시: 2/17(금)3pm~2/19(주일)5pm, 2박3일

장소: 뉴튼 분도수도원, 참가비: \$340

지도단: 미동북부 봉사회 지도신부 및 봉사팀

대상: 성령안에 삶 세미나 받은후, 영적성장과 공동체 봉사

헌신의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분. 신청마감: 2/5(주일)

신청문의: 맨하탄 성령기도회 347-665-6696

#### ▶주일학교 교사 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 ▶성경통독, 성경필사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말씀의 은혜안에 거하시는 한해 되소서!

성경통독: 김영빈 루시아, 유정옥 유스티나

성경필사(마르꼬복음): 김정호

### ▶미사전 일찍 도착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시다. 옆 사람과 대화 자제하시고 함께 성경 봉독하며, 주님 뵙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아줌마가 하느님의 부인이에요?"

어 느 겨울 저녁 맨발의 어린 소년 하나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불이 환하게 켜진 신발 가게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지나가다가 소년을 보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야,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니?"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느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양말과 신발을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려 소년의 발을 씻긴 다음양말과 신발을 소년의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느님 부인이에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오늘 복음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변하지 않을 소금이 된다는 것, 또 누군가의 앞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며 향기로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의 부인" 처럼 살아가기를 희망해야 하고, 희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부인"처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 58,7) 사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참된 단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복음에 비춰 본다면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율법에 따라 단식한다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는 유다인들에게 그게 무슨 단식이냐고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반기시는 참된 단식은 굶주린 이들과 양식을 나누고 가련한 이들을 잘 대접하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고 혈육과 원수가 되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 주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식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빛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행하는 것이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그림



#### 型以

우리를 모등에서 짠 맛이 어디에 내어 있는지 몸몸이 생각해 봐,

사선? 신설?

5台?

그 듯 하나라도 사상의 지렛대 되었나?

언제 어디에서나 짠 맛을 잃지 않고 살고 싶도,

글 그림 김시숙 에스텔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요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단체 모임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우리즐거움의원천 Pr.(청년)	매주 주일 11:00	교육관2D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	교육관3B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3A
청년회	첫째 주일 12:30	교육관2A
청년찬양팀(야훼이레)	1,2째 토 15:00	교육관3B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30	Rm(2F)
신명 <del>풍물</del> 패	2~5 주일 14:00	교육관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교육관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_